

공덕공덕예술공간

2007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2007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덕공덕 예술공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닥공닥 **예술공단**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l.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08. 2

글·사진 안정혜 · 도호연
디자인 도우리
인쇄 노란상자

©성남문화재단

공닥공닥예술공단

2007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목차

6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10	프로젝트 개요
12	프로젝트 맵
14	프로젝트 일정
16	생산과 존경의 벽
28	생기발랄 연두리본
32	시온의 집
40	우리 공동체
48	성남지역 자활센터
54	성남 장애인 재활 작업장 (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
60	성남여성회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
70	쉽, 오!
78	후끈후끈 상대원동
86	예술감독과의 대화
92	예술공단에 활기 (活氣) 씨앗이 번지다!

상대원 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콩닥콩닥 예술공단’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단 프로젝트 제목입니다. 2006년도의 골목길 프로젝트인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를 시작으로, 2007도에 아파트 프로젝트인 은행2동 주공의 ‘풀장환상’과 ‘콩닥콩닥...’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장과 상가의 프로젝트로 이어갑니다.

‘공단’은 공업단지(산업단지:industrial estate)의 줄임말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업자가 주축이 되어 부동산개발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이 점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에 울산공업단지가 최초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공단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울산이라는 공업도시입니다. 공단을 통해 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최초 신도시(new town)는 성남입니다. 신도시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과밀, 교통체증, 주택난 따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

택지를 말합니다. 상대원 1동에 위치한 성남 제2·3산업단지는 서울시의 불량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단지라 불리었던 ‘광주대단지’ 일부를 경공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68년 5월에 인가되어 74년 9월에 제2산업단지, 76년 11월에 제3산업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상대원 공단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됩니다.

상대원 공단은 성남이라는 도시의 역사 속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공단’의 역할과 관계가 바뀌듯이 성남의 공단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상대원동과 공단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상황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현격한 분리로, 주민과 기업 노·사와는 상호교류와 이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8월은 그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빛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상대원동의 복지관을 잇는 ‘연두리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원 시장 뒤 가파른 언덕위에 무의탁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온의 집은 정원 대신 좁고 높은 시멘트 벽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온의 집은 언덕에 지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창밖으로는 온통 시멘트 담벼락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시온의 집은 상대원 공단에 있는 통신기기회사인 (주)코맥스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오던 시설이라, 코맥스의 소개로 시온의 집을 찾아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대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벽에는 대나무 숲이, 정원을 가꾸려 했던 벽에는 꽃이 만발한 정원이 그려지는 상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은 시온의 집을 지을 당시, 주로 집안에 계셔야 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생각해 창밖으로 대나무도 심

고 예쁜 꽃도 심어서 방 안에서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상대원의 현실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코맥스 직원들과 작가들은 어르신들이 숲속에 앉아계신 기분을 느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시온의 집 식구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가며 환하고 따뜻한 숲과 뽕뽕 사랑스러운 꽃밭을 그렸습니다. 그 숲과 꽃밭의 수많은 가지와 꽃잎들은 코맥스 봉사팀원들의 섬세한 붓터치로 활짝 피어났구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코맥스의 김주열 팀장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았죠. 치매와 중풍을 앓으시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창밖으로 그려진 화사한 꽃들을 보시면서 환한 함박웃음을 얼굴에 떠올리실 때 저는 뭔가 가슴에 뭉클하는게 느껴졌죠... 제가 그린 그림으로 저분들에게 저런 행복을 드릴 수 있다니... 이젠 오히려 정말 나에게 주신 큰 선물같은 것이었습니다.”

9월에서 12월에 걸친 상대원동의 문화공헌 활동은 이렇게 (주)코맥스와 시온의 집, 삼성테크원과 우리공동체, 크린토피아와 성남지역 자활센터, 동양공업사와 에스콰이어가 성남 장애인작업장과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을 ‘생기발랄 연두리본!’으로, 아름답고도 훈훈하게 주민과 기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2008년 1월, 상대원 1동 279번지에 위치한 성남지역 자활센터에서 ‘후끈후끈한 상대원동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기발랄 연두리본에 참여한 기업과 복지관이 함께 모여 그동안 땀 흘렸던 ‘작품!’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시하고, 늘푸른 색소폰 등 사랑방 문화클럽의 멋진 공연을 함께 감상하며 짙은 소감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남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다가 어떨결에 골목길로 이어지는 자활센터 주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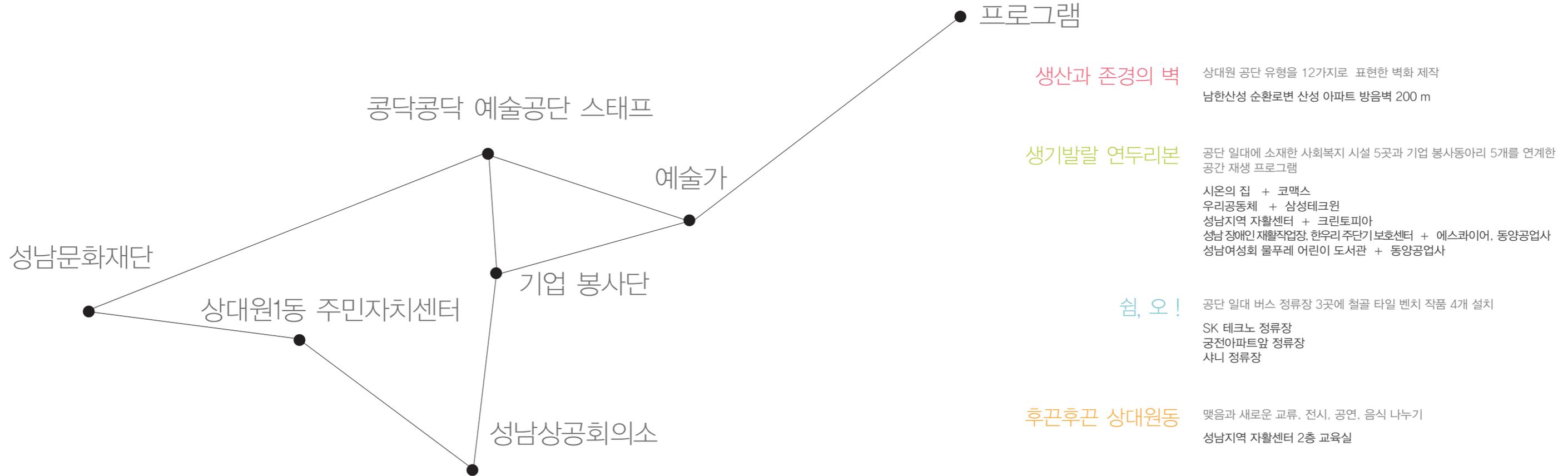
위한 심터를 꾸미는데 동참하게된 민수지 학생의 감동적인 소감발표는 아직도 가슴 속에 생생합니다.

공단을 변화시키는 문화공동체의 작은 움직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생기발랄 연두리본은 기업이 문화공헌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활로를 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단 프로젝트의 지속사업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을 열어 나갑니다. 성남시 곳곳의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예술과 연계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장을 만들고, 기업이 있는 동네에서 문화공동체가 싹트는 마을잔치를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의 ‘공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남 제2·3산업단지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첨단산업, 판교도심과 함께 열릴 판교IT지구의 R&D센터 및 IT벤처집적시설 등 새로운 공단 프로젝트는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화공동체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예술 공헌활동에서 싹트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상대원 공단 프로젝트의 가장 소중한 성과일 것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맵



프로젝트 일정

2007

4월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7년 기본계획 수립

5월

2007 동네프로젝트 지역선정 및
동단위 주민축제 지원사업 공모
(5.4-5.17)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설명회(5.10)
공단 프로젝트 사업 확정(5.22)

6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획안 공모
(6.20-7.9)

7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단유형 선정(그림언덕)

8월

기획 회의, 지역 조사
자료 분석, 협력단체 파악

9월

작가 선정 작업
최종 기획안 완성

10월

사무실 세팅, 스태프구성

생산과 존경의 벽

만화공모전 준비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조사
기업 유형 분류 생산내용 조사

생기발랄 연두리본

기업봉사단 조사 및 방문
복지시설 공간 프로그램 구상
세부일정 완료
작가섭외 미팅

쉽, 오!

기업 방문, 폐자재 협조요청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조사
설치 관련 구청협의

11월

사업 설명회 개최

만화공모전 홍보, 접수, 심사
설치장소 선정 회의
주민자치센터 미팅
작가 간담회, 현장답사
1차 디자인

시운의 집, 우리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기업 지원 요청 방문
(삼영전자, 쌍용양회)
작가회의
중원구 협의
설치 장소 재검토

12월

2차 디자인
디자인 심의 : 상대원1동 주민자
치센터, 산성아파트 동대표 회의
3차 디자인
벽화 제작 시작

성남지역 자활센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성남여성회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및 완료

중원구 현장답사
프로그램 변경사안 기획회의
설치장소 재선정
중원구 제안서 제출

1월

벽화 제작 완료

디자인 확정
쌍용 양회 기술자문
중원구 설치허가

후끈후끈 상대원동

후끈후끈 상대원동
준비, 최종 점검
프로그램 진행 및 완료

2월

철 골조 제작
타일 작업
설치 완료

2008

생산과 존경의 벽

남한산성 순환로변 산성아파트 방음벽 200m에 공단 이야기를 담은 12개의 벽화 제작





8월

기획회의
지역조사, 분석,
협력단체 파악

작가선정작업
최종 기획안 완성

9월



10월

성남시 초중고교 리서치
중학교내 만화동아리 리서치
만화공모전 계획안 수립
만화공모전 공문과 포스터 발송
주민자치센터 협조 요청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기업 방문
공단내 기업 생산활동 조사 및 분류



11월

만화공모전 접수, 심사
설치장소 선정 회의
상대원동 산성아파트 방음벽 200M
(산성아파트 동대표, 성남시의원 등의)
참여작가 확정
참여작가 1차 간담회 및 현장답사
1차 디자인

2차 작가 간담회, 2차 디자인
디자인 심의 -
(상대원1동주민자치위원회, 산성아파트
동대표 회의)
3차 디자인 원료, 산성아파트 등에서 제출
방음벽 청소 및 기초 작업
벽화작업 개시

12월



1월 12일

프로그램 완료

2007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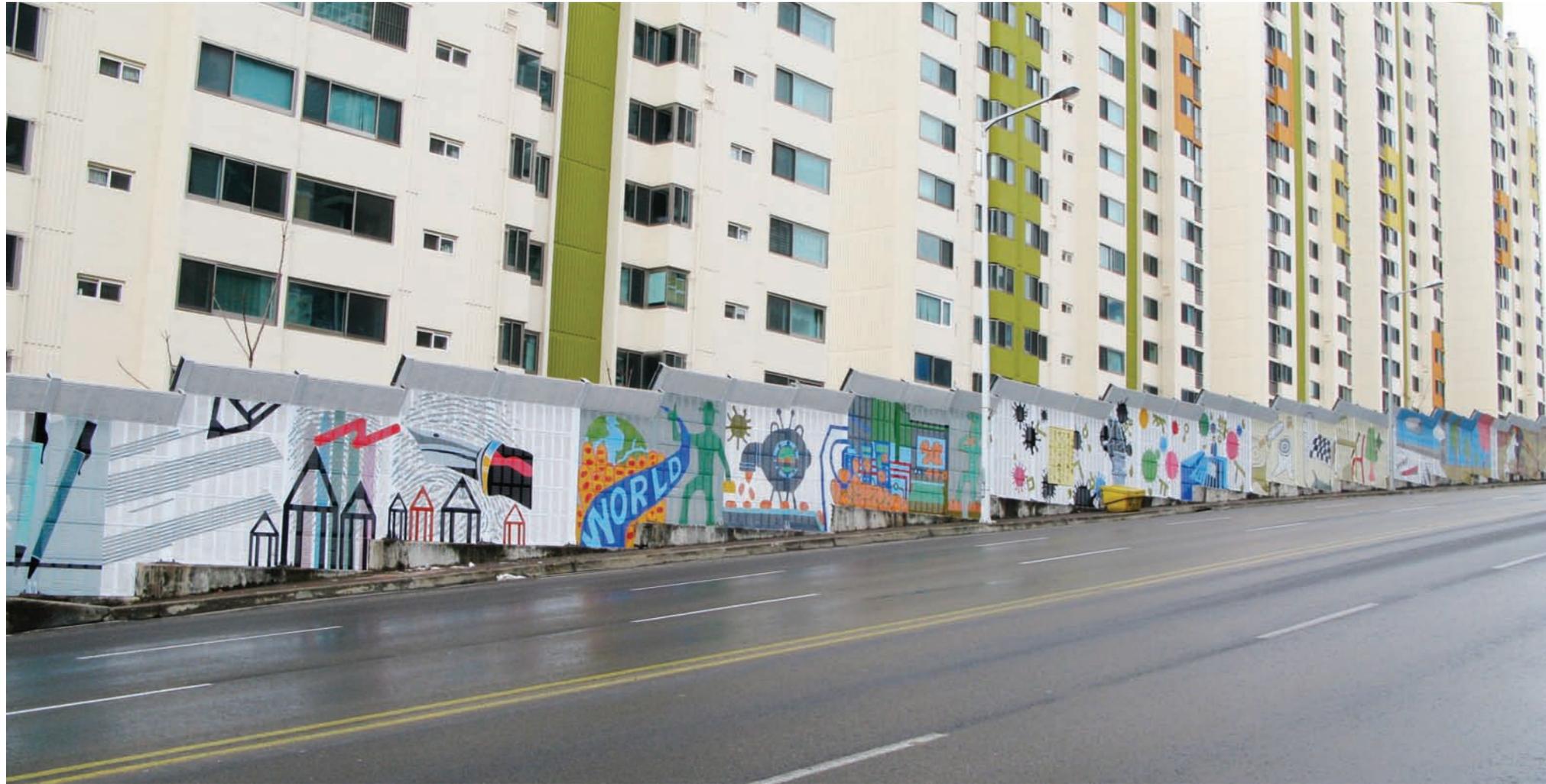
지역탐구 성격을 갖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도를 잡았다. 초점을 두었던 부분은 아이들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모집하기 보다는 일대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을 찾아가 직접 설문을 하며 준비했던 만화공모전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호응을 많이 끌어내지 못해서 디자인에 반영되지 못했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법과 학교 교과에 연계된 프로그램 진행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2008

공공미술 작품의 사후관리와 디자인

생산과 존경의 벽은 48개의 프레임을 가진 오브제 형식의 디자인안을 가지고 있었다.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난과 훼손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공공미술 작품의 사후관리는 설치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음벽으로 결정 했고, 평면 작업으로 디자인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청 도로과와 방음벽이 설치되는 산성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상대원 공단은 성남시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하며 성남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낸 곳이다. 제조업이 점차 해외로 빠져나가고 IT산업과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단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 꾸준한 생산 활동으로 삶을 지켜온 노동자와 지역기업에게 작은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로변 산성아파트 방음벽 200m에 상대원 공단에서 생산되는 12가지 품목을 대표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과정과 풍부한 정보를 담은 벽화를 그리기로 했다. 벽화의 설치와 사후관리하는 성남시청 도로과와 의논하고, 디자인에 관한 의견은 주민자치센터와 산성아파트 동대표회의를 통해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상대원 2,3공단에는 약 150여개의 업체와 2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해 있다. 기획팀은 미로갈던 공단 골목이 손바닥 보듯 환하게 보일 때까지 누비고 다녔다. 공단내 많은 업체들이 바쁘신 중에도 기획팀을 성심으로 맞아주셨다. 기꺼이 공장 깊은 곳까지 문을 열어 주신 공단 여러분들 덕에 작가들이 보다 생생하고 힘있는 공단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한 겨울 추운날씨를 이겨내고 200m, 초대형 벽화가 완성되었다. 출퇴근길 정체가 심하고 통행량이 많은 순환로변이 이제 삭막한 공기를 털어내고 공단을 상징하는 12개의 벽화로 지역박물관의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01



02

01. 02

공장을 둘러싼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는 상대원 언덕. 담장의 구조, 재질, 관리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보고 또 보고 이어지는 현장 답사.

03. 04

각 공장 관계자들은 생산현장, 기계실, 자재창고와 폐기물 처리장까지 작가들을 위해 공개해주었다. 작가들은 생산라인에서부터 폐기물까지 공단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



03



04

05

방음벽 물청소를 지원해주신 상대원 1동장님과의 미팅. 주민자치센터는 기획단 활동의 주요 동력이 되어 주었다.

06

작가미팅 - 아이디어 회의. 기계의 원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단의 자랑거리가 되어보자. 유머와 재치, 제품보다 생산력을 보여주는 도안. 시민, 동화적인, 엉뚱한 상상, 개인과 공공 사이의 조화, 지역성, 거주자, 생활의 활력과 같은 이야기들이 꽃을 피운다.



05



06



07



08



09



10

07

깨끗한 작업을 위한 물청소

08

벽화가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접착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 작업

09

바탕칠로 발색을 좋게 하는 우레탄 페인트 중도 작업

10

본 벽화 작업



위종만 필기구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칼보다 강한 펜을 만드는 생산자의 지문을 통해 노동의 승고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서대성 출판인쇄
책의 역사

훈민정음 초창기 목판인쇄체를 모티브로 삼았다. 먹물로 과거를 회상시키며, 현대적 이미지로서 칼라를 사용했다. 이 작품의 유머는 책읽는 로망이다. 책도 읽고, 생각도 하자구요!



김지성 양회
블록풍경

시멘트 블록은 건축의 기본구조다. 시멘트 블록으로만 만들어진 세상은 아름답지 않고 시멘트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도 있다. 상상해 봤다. 차분하게 시멘트 구름이 흐르는 낮은 언덕의 오후.



장우중 제빵,식품
거인과 빵 (세계속으로)

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 위의 거인.
우리의 맛을 들고 세계로 나간다.
빵이 제작되는 과정을 '무대' 에 빗대어 역동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고, 글로벌 시대의 알찬 제과, 제빵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조윤구 가구
가구와 단상

신소재와 다양한 재료로 생산되는 가구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다.
침대와 의자, 스탠드가 켜져있는 일상적이고 따뜻한 풍경 안에 못과 연장이 포함되어있다. 가구의 구조와 의미는 일상 안에서 되짚어진다.



조인희 첨단
multi utopia

디지털에 의한 멀티미디어 세상.
사람과 기계문명의 만남은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 냈다. 수많은 단자사이를 오가는 전기적 자극이 대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서로를 관통하는 스펙트럼이 빛의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간다.





김형관: 제화, 가방
사랑의 움직임

너와 나.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그 삶 속에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는 가방 혹은 신발.
인물의 동적인 제스처를 크게 해서 공간을 확장시키고자 했고, 보는
이의 마음이 그림을 따라 편안히 움직일 수 있게 작가의 의도가 넘치지
않도록 했다.



정세학: 통신
차가운 소통

현대산업사회의 또 하나의 혁명, 통신.
인간과 인간이 기호 속 회로를 타고 찰나로 연결된다.
차가운 소통이 만들어 내는 푸른 우주.



최성균: 제약
반복과 생산

제약의 대표주자 캡슐 알약. 단순한 모양, 단조로운 반복 나열로
대량생산을 표현했다.
사랑을 지켜주는 약, 콘돔을 알약들 사이에 위장 군인 처럼 숨겨
놓은 것은 사랑에 대한 나의 유머.

이규영: 고무
생고무 말리기

성남공단이 내려다보이는 방음벽에 '만약 생고무 생산 공장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연출했다.
공단이 하늘에 보이도록 끼얹호! 하늘 높이 올려주는 생고무천의
탄력을 감상하는 것이 이 작품의 포.인.트



이길수: 전자
electronics

성남 산업단지 내의 전자공업 업체들은 대부분 부품 업체다.
부품들은 완성품의 필수 요소이다. 이것을 접이 모여 글자를
이루는것에 비유했으며,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전자적인 느낌을
쉽게 표현했다.



정용주: 자동차
그대 머문자리 (풍요로운 공간)

풍경화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자동차를 소재로 풍경화처럼 목가적인
느낌이 나는 작업을 해보았다.
벽화는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간이므로 시각적인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가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모두를 생각 하는
마음을 맨 앞에 두고 있다.



생기발랄 연두리본

공단일대에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 5곳과 5개 기업의 봉사동아리를 연계한 공간 재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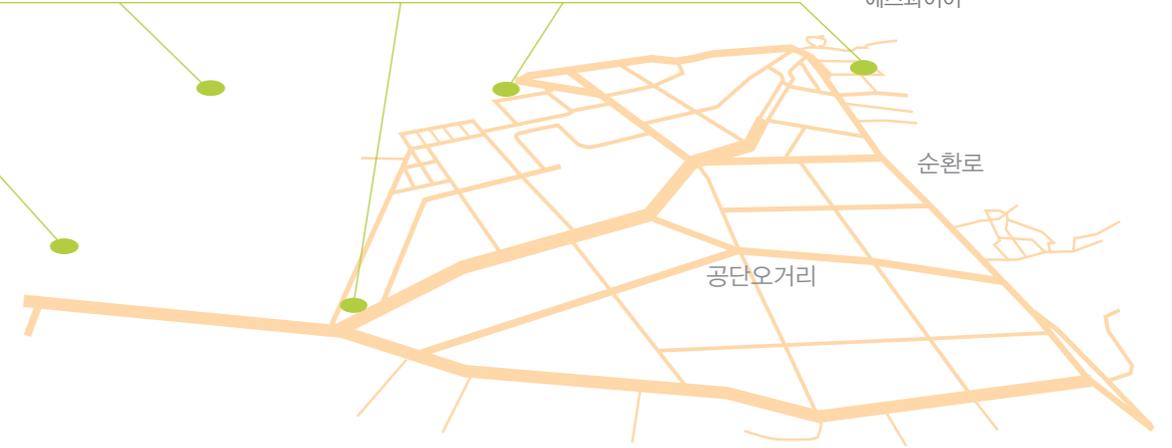
시온의 집
코맥스

성남여성회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
동양 공업사

우리공동체
삼성테크윈

성남지역 자활센터
크린토피아

성남장애인재활작업장
(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
동양 공업사
에스콰이어





조사대상 설정
복지시설 조사
공간조사
최종 기획안 완성

8월

기획방향 설정
기획회의
지역조사, 분석,
협력단체 파악

2007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문화를 접 붙이기

목욕, 청소, 식사돕기, 말 벗 해드리기와 같은 인력봉사. 침 놓아 드리기, 놀이치료, 노래 지도 같은 재능봉사. 먹거리와 입을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는 물질봉사.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지만 문화적 활동이 들어간 봉사가 있다면, 모처럼 쉬는 날의 봉사활동이 피하고 싶기 보다는 더 기다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봉사 활동이 서로가 운택해지는 시간, 자기실현의 기회가 된다면 일방적인 수혜-공헌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함께 하는 공동체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생기발랄 연두 리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회공헌 방식에 예술을 접목시켜 사회복지 시설과의 소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월

기업 봉사동아리 실태 파악
한국 노총 방문
성남상공회의소 지원요청
기업봉사단, 복지시설 방문
봉사단 의견 수렴
기업 봉사단 섭외 및 세부일정 완료
각 기업 봉사단 참여 여부 정리
작가섭외

9월



11월

성남상공회의소 기업협조 공문 발송
기업봉사단 참여상황 점검 (참여기업 추가확보)

시운의 집 작업
우리 공동체 작업

12월



성남지역 자활센터 작업
우리 공동체 작업
장애인 작업장 작업
여성회 도서관 작업

프로그램 완료



2008

스스로 재미를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원활동 동아리에 예술공단 프로그램을 홍보할 방법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이나, 공단 내 포스터 부착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사원의 자원활동이 근무시간에 포함되거나 인사에 반영되므로 인사과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업과 상공회의소의 협조도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한사람 한사람이 문화 예술 자원활동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차원의 봉사일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그 사이에서 문화적 파장이 일어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직 자원활동에 대한 인식이 봉사 개념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콩닥콩닥 예술공단을 통해 문화 자원 활동에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시온의 집 담장벽화 코맥스와 함께 했습니다.

2007.11.3/ 10/ 17

참여봉사단

김주열, 최원철, 김양미, 정기봉,
박효정, 최영란, 김달환, 김경아,
김경일, 갈영민, 김지수

참여작가

조인희, 정용주, 남궁희



시온의 집은 1층과 2층 창밖으로 담장이 가까이 서 있어서 창을 열어도 답답한 구조다. 집 지을 때, 담 대신 나무와 꽃을 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셨단다. 원장님은 담장에 대나무와 꽃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시온의 집을 지원해 오고 있던 코맥스 봉사팀과 담장을 생기롭게 할 벽화 작업 일정을 잡았다. 풍경화 잘 그리고 꽃 잘 그린다는 성남 작가들도 섭외했다.

학창시절 이후로 붓을 잡아본 적 없는 봉사팀은 작업을 낫설어 했고 작가들 또한 봉사팀과의 작업을 걱정했다. 작가들은 벽화의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봉사팀과 효과적인 작업 방식을 고민해야 했고, 봉사팀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잠자고 있던 감각을 살려내야 했다. 코맥스 봉사팀은 도안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작가들이 밑그림과 마무리 터치를 하여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다.

처음엔 양 쪽 모두 걱정하며 시작했는데 끝날 땐, 웬지 서로들 상기되어서 뿌듯한 얼굴이었다. 끝나고 보니 벽화 디자인에 대해 봉사팀과 작가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작업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건물 뒷편 높은 담장에는 언제나 푸른 대나무 숲, 낮은 담장엔 뽕 돌아가며 시온의 집을 알록달록하게 지켜줄 꽃밭이 생겼다. 커다란 벽화가 마침내 완성되자 봉사팀은 자신들의 손끝에서 대나무 숲이 탄생하고 꽃이 피어난 것만 같아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작가들도 걱정의 그늘이 사라지고 봉사팀과 함께하는 벽화작업이 의외로 신선했으며 스스로 자원해 열심히 참여한 봉사팀을 보면서 놀라웠다고 한다. 그들은 미묘하지만 새롭고 즐거운 변화를 맛보았다. 문화적 성취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웬지 모를 뿌듯함이 작업을 마무리 하는 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01

기존 시멘트 담장. 삭막한 회색벽이 문을 제외하고 시은의 집을 모두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에 대나무 숲과 꽃밭 언덕을 그리기로 하였다.

02

시은의 집 식당 겸 거실 공간의 풍경. 이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사도 하고 침도 맞고 모여서 요리도 하는 만남의 공간이다. 벽화가 장벽으로 펼쳐지게 되어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장소.

03

코맥스 봉사팀 김주열 팀장님이 꽃잎 하나, 풀잎 하나를 그리고 있다.

04

할아버지 방 뒤쪽 담장으로 오색 꽃이 만발했다. 이 꽃밭 언덕은 꽃잎 하나하나를 코맥스 봉사팀이 일일이 붓으로 찍어 완성한 것이다.

05

시은의 집 식구들이 참여한 현관 앞 발도장 그림.

06

대나무숲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작가들과 봉사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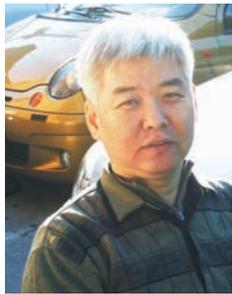
정용주 참여작가

“벽화는 한번 작업하면 오래도록 보아야하는 그림이니 다음 그림으로 바뀔 때까지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시온의 집 원장님과 사모님, 시온의 집 사람들

“집을 지을때 집을 둘러싸고 대나무와 꽃들을 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늘 아쉬웠습니다. 시멘트 벽이 바짝 붙어 있어서 삭막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동이 불편하셔서 맨날 벽 바라보고 계신데 벽화로라도 숲속에 앉아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벽화가 생겨 이제는 식사시간을 숲속의 만찬이라 불러요. 밥 먹을 때마다 너무들 좋아하세요. 녹색이 없었는데 푸른 정원이 생겼어요. 할머니들은 집이 다 환해졌다고 말씀하세요. 문 열기 전에 이집은 특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입구 바닥 발도장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인희 참여작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완성도 보다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에너지를 나눌 수 있고 공익을 위한 작업의 하나였기 때문에 참여에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38년째 살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 호흡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다채롭고 즐거워서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을 섞어서 뭉치고 조율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온의 집 뿐만 아니라 더 여럿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과 위주의 프로젝트보다는 공공에게 얼마나 유익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열 팀장 총무부

코맥스 봉사팀의 기동 김주열 팀장님. 담백하고도 시원시원한 성격에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벽화작업에 임하셨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동네에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프로젝트를 받기 싫으시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저는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좋았습니다. 원래 시온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봉사팀들에게도 강추입니다! 봉사를 했다고 보다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갈영민 씨 (Emil Kalilov) 해외영업부

재치가 넘치는 갈영민씨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상상도 못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외국인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어요. 할머니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활동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그림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도 하고 싶어요.”



김경아 씨 총무부

두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경아씨는 따로 시간을 더 내어 시온의 집을 찾은 발랄하고 귀여운 아가씨다. “마음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홍보가 좀 더 많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싶어도 몰라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근데 성남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성남방송에 광고 안하세요?”



우리공동체 평상만들기 삼성테크윈이 함께 했습니다.

2007.11.28/ 29. 12.03

참여봉사단

변혜연, 권주원, 염우석, 권영상, 박효, 박완기.

참여작가

임창조



오후 네시, 혜은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마중을 나갔다. 스쿨버스가 우리공동체 가까이 내려주지만 혼자 걸어오기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꼭 마중을 나가야 한단다. 아이들 십여 명과 어른 세 명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공동체까지 걸었다.

가까운 거리도 꼭 손 잡고 걸어야 할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아픈 아이들. 우리공동체 아이들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넓은 옥상이 있어서 앉아서 놀기 좋은 의자와 평상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공동체와 작업하기로한 삼성테크윈은 연말과 사옥 이사가 겹쳐 두 배로 바쁜 상황이었다. 하지만 봉사단을 편성하고 시간을 할애해 우리공동체를 찾았다.

용도에 맞게 붙였다 떼었다 쓸 수 있는 꽃 모양 평상과 아이들이 같이 앉기 좋은 넓다란 벤치 두 개를 만들었다. 장애정도가 약한 우리공동체의 아이들이 참여해 작업을 도왔다. 아이들은 망치와 드릴에서 눈을 떼질 못했다. 아이들은 작업 내내 사포질도 하고 못도 집어 주며 작가와 봉사단을 도왔다.

의자와 평상은 튼튼하고 균형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자에겐 치수에 맞게 나무를 자르는 것도 어렵다. 게다가 아이들이 거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며 진행해야 해서 더디고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작업은 특별했다. 화려한 예술작품은 아니었지만 나무조각이 의자가 되고 평상이 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나 봉사단에겐 즐겁고 의미있는 체험이었다. 작업이 완성되자 그 어떤 예술품도 줄 수 없는 흐뭇함이 우리공동체를 감쌌다. 꽃피는 봄,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벤치와 평상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을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권영상 광영상개발

“책상에 앉아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좋았어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나니 보람을 가지고 기분 좋게 일하러 돌아옵니다.”

박호 광영상개발

“귀찮긴요. 내 조카다 생각하고 아이들과 하고 작업했어요. 장애인 인권 쪽에 관심이 있어요. 문화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일단 이런 작업들이 알려져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기업의 인사과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박완기 영상정보기획

“봉사지만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언제나 시간이 문제였죠. 그 전에는 주로 놀아주고 목욕봉사였는데 이런 작업을 하니 좋네요.”

임창조 참여 작가

“솔직히 말해 이렇게 만드는 것 보다 벤치나 평상이나 사는데 훨씬 더 싸요. 하지만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니 좋지요. 의자나 가구는 무엇보다 튼튼하게 우선이에요. 꽃 모양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 구성이 가능하게 평상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새로 바꿀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니 만큼 치수재고 자르는 법을 교육하는 과정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6주 정도에 걸쳐 시간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뿌듯해요. 내 아이들이 쓴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포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요.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산정상에 오른 것 같네요.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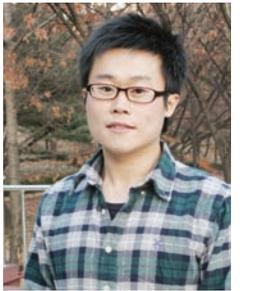
변혜연 반도체시스템CS 고객센터

“어떤 일을 할지 더 잘 알고 왔었다라면 좋았을 걸, 한 기업에서 한 시설을 연결해 꾸준히 하게 이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권주원 연구지원그룹 정밀기기연구소

“이 일이 끝나면 돌아가 해야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업무량의 부담되지만 보람있었습니다.”





최영희 우리공동체 시설장

“경제적 지원이 늘 시급해요. 지금은 주거지만 안정된 상태고 생활과 주거 여건을 원활하게 하는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문화프로그램과 정서지원 자존감 갖기, 사회적응 훈련지원이 아닐까 해요. 그동안의 봉사는 목욕, 청소, 산책 도움 정도 였고 문화적 접근은 없었던 편이에요. 정서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듯해서 사업 설명회에서 들으면서 신선했었어요. 가정형편이 안 좋은 친구의 아이를 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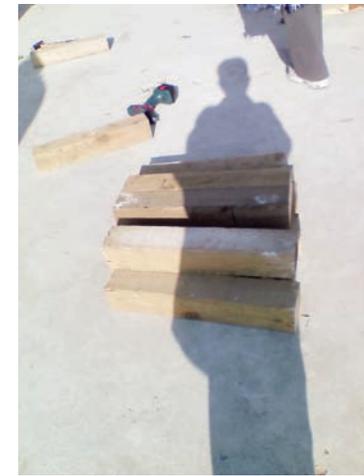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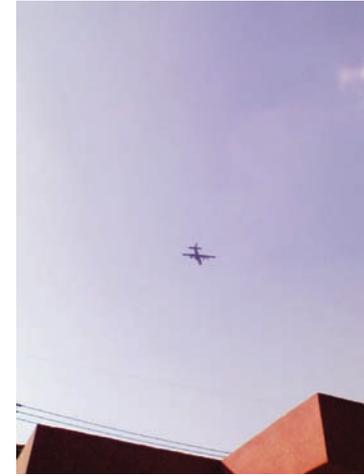
맡아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많아져 시설로 인가를 받았죠. 그런데 인가가 나니 규제만 많네요. 우리공동체에서 가장 큰 아이가 고3이에요. 똑똑한 애들, 일반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 장애 정도의 차이가 커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할지 걱정이지요. 기업에서 후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같은 것이 이뤄지면 좋겠어요. 단순 노동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으니 노동 교육도 하고 사회를 접해볼 수 있도록 공장이나 구내 식당 견학도 좋아요.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앓을 데가 없어서 평상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혼자서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겠지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평상에서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써보고 삼겹살도 구워먹을 거예요.”



포마 사진사 권순성 어린이

열 살이지만 학교를 늦게 들어가 초등학교 1학년인 순성이는 심리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정서 장애아다.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카메라만 쳐다보며 줄줄 따라다니는 통에 휴대폰 카메라를 순성이에게 안겨 주었다. 사실 그냥 가지고 놀겠거니 했는데, 놀랍게도 척척 작품같은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순성이의 카메라 앞에선 봉사단의 표정도 밝아졌다. 찍은 사진을 본 사람마다 순성이의 숨겨진 재주에 깜짝 놀랐다. 오른편 사진들은 모두 순성이의 천진한 시선이 담긴 사진들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순성이처럼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문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정서를 치료하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순성이를 통해 엿볼수 있었다. 좀더 지속적인 문화 도움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권순성 어린이가 찍은 사진들

성남지역 자활센터 쉼터와 벽화 크린토피아가 함께 했습니다.

2007.12.2/ 9/ 16/ 24

참여봉사단

김유영, 김희권, 이화정, 김승옥, 심우창, 서정범, 황인규, 김지현, 백정현, 유정선, 김재훈, 신규섭, 김영구, 권주환, 박진선, 박성민

참여작가

남궁희, 임창조



성남지역 자활센터는 1999년에 설립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60명이 교육받고 있는 이곳은 사실 주변 경관까지 신경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 이름도 ‘Love Cleaning’. 크린토피아는 예전부터 어려운 분들의 집이나 시설에 빨래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봉사단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데엔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었다. 그래서 크린토피아는 성남지역 자활센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몇 년째 내버려둔 마당의 잡초, 넝쿨을 뽑고 흙을 고르고 건물 용벽의 족히 십년은 되었을 두꺼운 먼지를 털어냈다.

침침했던 골목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조짐을 눈치챈 주민들이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통행량이 많은 골목이라 주민들 반응이 빠른 곳이었다. 벽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봉사팀이 붓을 들기시작하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 치료를 하는 남궁희 작가의 섬세한 이끔으로 작업은 조화롭고 순조로웠다.

디자인 전공이었다는 봉사팀 백정현씨가 오랫동안 실력발휘를 하였다. 황인규씨는 다음날 마침 집에 페인트 칠을 할 예정이어서 연습이 된다며 즐거워했다. 봉사팀, 작가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 알콩달콩. 4주가 지나자 쉼터는 따뜻한 나무 펜스가 둘러진 연두빛, 보라빛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더러웠던 용벽도 아가지기하게 변신했다.

시온의 집 이야기를 듣고 크린토피아 봉사팀은 빨래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두리본을 계기로 새롭게 인연이 닿은 것이다. 앞으로 축축한 실천과 나눔들이 오고가기를 기대한다.





김희나 자활센터 과장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직업 없는 분들을 교육하고 직업알선을 하는 곳이에요. 도시락 사업팀도 있고 청소나 간병도우미같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도 하지요. 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 공부방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우중충하고 어두웠어요. 골목이 좁은데 차도 사람도 많이 다니는 통로예요. 그래서 벽화와 시설 내 쉼터 제작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궁희 참여작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자활센터의 취지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동네사람들이 자활센터를 좋지 않게 여긴다고 해 놀랐어요. 주민들이 자활센터 벽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에 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이 조금씩 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를 유도했더니 흔쾌히 차도 빼주고 서로서로 배려해 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정서적으로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성남장애인지원재활자립작업장, 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

벽화 그리기에 동양공업사와 에스콰이어가 함께 했습니다.

2007.12.14/ 15/ 16/ 17

참여봉사단

박은진, 안혜자
이정하, 윤문환, 이경영, 김형근, 조재곤, 안병국,
남만희, 홍성태, 최정훈, 유창우, 오미희, 정이권,
이형진, 이희동, 고동오, 노창호, 김주환, 강명숙,
박은정

참여작가

정삼선, 이병철



바람이 차고 깨끗한 남한산 자락 사기막골. 성남시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과 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가 아래층 위층으로 사이좋게 붙어있다. 1995년에 설립된 2개동 건물에 장애인 관련 연합회와 장애인 작업장 등 9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은 장애인 150명과 직원 5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단순 조립 및 포장(양말, 텀버린, 마이크커버, 공구세트 등) 작업을 한다.

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는 성남지역의 일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보호자의 외출, 여행, 출장 등의 사정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비교적 단기간 동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또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활동도 이루어진다.

언덕에 위치한 이 곳은 구조적으로 큰 옹벽 두 단이 있다. 벽화가 한 군데 있었지만 오래되어 낡았고 윗단 옹벽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지만 군데 군데 떨어져 시멘트가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래서 벽화를 새롭게 제작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기로 하였다.

에스콰이어 봉사단은 현재 가평꽃동네 장애우와 치매노인, 노숙자를 위한 봉사 활동 중인데 이번 생기발랄 연두리본의 소식을 듣고 서울 봉사단 회원이 자원해 왔다. 그리고 동양공업사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해 거대한 옹벽 벽화를 단숨에 완성해냈고, 성남 여성회 어린이 물푸레 도서관에까지 참여했다.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지만 힘을 합쳐 골목 풍경을 바꿔낸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한층 밝아진 언덕, 산뜻한 색채의 작업장을 만들어 낸 참여 봉사단원과 작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01 일주일이 걸릴수도 있는 대형 벽화 작업을 스무 명의 동양공업사 직원들이 한몸이 되어 단 하루만에 푹닥 완성해냈다.

02 사다리로도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어떻게 칠할까 난감했다. 그런데 동양공업사 봉사팀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올라가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03 성남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은 연말 연시가 겹쳐, 쉬는 시간도 없이 일감이 밀려 있었다. 벽화에 참여 못해 미안하다고, 벽에 산뜻한 그림을 그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04 자기가 그린 부분을 가리키며 뿌듯해하는 동양공업사 정비관리 사무소 김형근 씨. 오늘은 정말 쉬고 싶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05 완성된 벽화를 휴대폰 카메라로 담은 박은정 씨. 너무 작은 부분을 그려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뿌듯하다며 미소지었다.



06 참여작가 이병철씨는(성남지역 작가모임 한뫼골 사무국장) 한우리 주 단기 보호센터의 오세환 선생님이 토속적이면서 밝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 같은 그림을 부탁하셨는데 장애인이란 그렇지 2,30대가 많아 너무 동화같은 그림이 어울릴까 고민되었다고 한다. 주변 환경과 시설 이용자들을 잘 고려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워 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미가 있었고 더 자발적이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보안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여성회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 책상,의자, 새단장에 동양공업사가 함께 했습니다

2007.12.16/ 17/ 24

참여봉사단

노종호, 박영식, 김창태, 노창호, 서영득, 김태수
성남여성회 박미향, 송경숙, 김수연, 이현정, 이원경,
구미순

참여작가

이주송



금상초등학교 옆 골목 슈퍼마켓 2층에 위치한 물푸레 어린이도서관. 아이들과 함께하는 알뜰 베품시장이고 열고 배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한글과 영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화 동아리, 풍물반, 역사기행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남 여성회가 아이들 위해 자비를 들여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그런데 자체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 시설과 집기가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성남여성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두리본 프로젝트는 내부를 생기있게 도색하고 의자와 책상을 도서관에 맞춤 제작하기로 했다.

마침 자동차 도색을 담당하는 동양공업사 도장팀장님이 참여해주셨다. 칠 작업이 많았던 참에 놀라운 우연, 즐거운 인연이 닿은 것이다. 이주송 작가는 긴장했다. 수 십년 경력의 도장팀장님 앞에서 주름잡는 형국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화기애애. 멋진 귀걸이를 하고 계신 도장팀장님과 이주송 작가는 작업 내내 즐거운 농담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쉽습하게도 아이들은 공간의 색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눈치채주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곤 했었는데 새 책상이 생겨 너무 신이 난 표정이었다. 따로 또 같이 쓸 수 있는 네 개의 책상을 한데 모아 여럿이 둘러 앉아보기도 하고, 따로 놓고 혼자 앉아보기도 했다. 공책을 올려놓고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아이들 모습에 어른들의 마음도 뿌듯해졌다.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의 간판도 새롭게 변신했다. 도서관 내부의 색과 맞추어 연두빛, 올리브빛 옷을 입었다. 앞으로 동네 아이들이 밖에서 간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서관 내부 공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파릇한 간판과 푸르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의 꿈이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01



03



02



04



05



06

01

책장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도 깨끗이 지우는 봉사팀. 번거로운 정리작업도 끝까지 즐겁게 임해주었다.

02

작업을 마친 후 단체 사진 한 컷! 그 사이 정이 들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업무에 바빠 작업에 함께 하기 어려웠는데 물푸레 어린이 도서관 운영진은 오텀에 고구마 같은 새참까지, 한 가족처럼 도우며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03, 04

다소 어두웠던 청록, 갈색 간판이 생기있는 연두 올리브 빛으로 새 옷을 입었다. 내부와 색채를 맞춘 간판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통일된 이미지를 주었다

05

이날 당직자를 뺀 동양공업사 전 직원이 생기말랄 연두리본에 참여했다. 봉사단 김창대 씨는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으면서도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06

도색의 달인, 박영식 도장팀장님.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도서관의 화사한 색만큼 작업장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 방 하나를 다 칠하고도 옷에 페인트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경이로운 솜씨를 자랑하셨다.



박미향 성남여성회 회장

“아이들 공간이어서 내부를 화사하게 하고 싶었는데 참 잘됐어요.
하루에 수백권의 신간이 나오는데,
앞으로 책을 더 많이 구비될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어요.
운영비나 도서 지원, 전문가들의 재능 지원도 환영합니다~.”



송경숙 성남여성회 사무국장

“부모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린이들이 여기서 낮 시간을 보내요.
회원회비로만 운영하기가 어려워 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환경, 밝은 환경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주승 참여작가

“봄처럼 화사하고 차분하게 올리브색과 노란색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놀라운 조형능력과 예술감각의
기쁨조로써 참여하고자 했지요.(웃음)
주어진 환경에 새로운 질서와 조형미를 불어넣어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색의 위치와 넓이로 구성했습니다.
이미 책장의 책들이 알록달록해서 벽면에 김정만 배제하고 차분하게 보일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 저의 역할은 ‘봉사단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작가’ 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캔버스가 아니라 모두의 캔버스,
같이하는 작업이라 의미있었습니다.”



구미순 성남여성회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회원이에요. 이곳 골목길이 차도여서 위험해요. 아이들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성남이 아직은 열악하지요.
그나마 작지만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휴일인데도 나와서 작업해 주셔서 뭉클하고 뿌듯했어요.”



문지원 성남여성회 회원

“논술도 가르치고 북아트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책상에서 책 봐서 좋아요.
성남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 지원된다면
이곳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과 작가분들을
연계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한 생기발랄 연두리본

2007.12.13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변봉덕) 회장단 및 참여 기업봉사단 5개 업체 실무 책임자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에 성남상공회의소가 함께 뜻을 모았다.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변봉덕) 회장단 및 연두리본에 참여한 5개업체 실무 책임자는 우리공동체,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온의 집, 성남지역지활센터 등 연두리본 5개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변봉덕 회장은 “연두리본 프로젝트가 데페이즈망 (depaysement,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것) 사례라 생각한다. 여러 곳에서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가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성남상공회의소가 문화와 기업 봉사활동을 결합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도 사회 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봉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온의 집에는 기저귀를, 우리공동체엔 치약까지 준비하는 등 성남상공회의소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을 준비하였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며 응원도 해주셨다. 많은 기업 봉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 시설에 방문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성남상공회의소 여러분의 관심에 생기발랄 연두리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01 우리공동체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02 성남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해 생산 환경과 과정을 돌아보았다.
03 시온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노래도 듣고 담소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쉽, 오!

공단지역 내 주요 버스 노선 정류장 세 곳에 정류장 이용객을 위한 색깔 있는 네 가지 벤치 만들기

샤니 앞 정류장

SK테크노 정류장

공전아파트 정류장





조사대상 설정
공간조사
섬,오! 최종 기획안 완성

8월

기획방향 설정
기획회의
지역조사, 분석,
협력단체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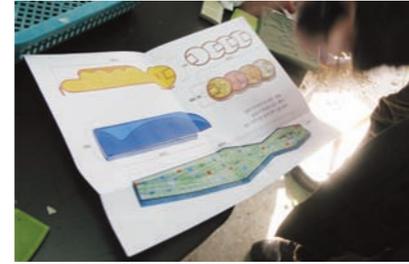
9월



10월

기업 방문
폐자재 협조요청

성남시청 관련과 방문
설치 관련 협의



11월

현장답사
작가회의
설치안 결정 보류
(중원구청 건설과, 성남시청)

12월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기존 정류장 보완
형식으로 설치 허가 입장 표명
설치 및 제작 계획 변경
설치장소 재선정 및 세부제안서 구청 제출



1-2월

중원구청 건설과 설치 허가
디자인 조정
쌍용양회의 지원으로 레미콘 시멘트
벤치를 제작하려 했으나 영하의 기온
으로 인해 무산
철골조 타일 벤치로 제작 방식 변경
벤치 제작
현장 설치

2007

2008

공공미술, 공단 지역 기업과 함께 하기

섬, 오! 프로젝트는 상대원 공단 기업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할수 없을까 생각했다. 공장의 특화된 기술이나 폐자재를 이용해 재미난 작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 업체를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가능한 자재를 문의하자, 대부분의 기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특히 쌍용양회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기술적 조언과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멘트 자재와 제작 지원을 약속하였다. 비록 영하의 추위로 인해 시멘트를 자재로 쓰지는 못했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상대원 공단 업체들이 기술과 자재를 지원해 예술가와 함께하는 미술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설치를 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버스 정류장 디자인. 도시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딱딱하고 일률적인 모양에서 벗어나 버스 정류장이 상상력을 입은 즐거운 심터로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상상력만으로는 훌륭한 디자인이 될 수 없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다.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에 따라 적당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보도블럭이나 다른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설치 방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을 위한 재료와 공법의 안정성이다.



01



02



03



04

01
바게트 빵을 삼킨 스페너 벤치
사니 정류장

02
악어를 흉내내는 니퍼군 벤치
SK 테크노 정류장

03
툭고래양 벤치
공전 아파트 정류장

04
수다쟁이 스페너 벤치
사니 정류장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공단지역 버스 정류장은 이용객이 많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쉬어갈 수 있으면서도, 이곳이 공단임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유머러스한 벤치를 만들고자 콩닥콩닥 예술공단이 나섰다.

버스정류장 의자를 오히려 대단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계기, 새로운 자극을 주는 즐거운 벤치를 만들고자 했다.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질서를 유도하면서 재치있는 풍경을 연출하는 방식같은 것 말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조력 의사도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답사도 거쳤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공공시설물에 대한 요구,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안은 공단의 특색을 재미있게 표현하면서도 유머가 담긴 타일 철골조 벤치로 결정되었다.

제빵 기업 사니 앞에는 스페너 여러개가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삼은 '수다쟁이 스페너', 빵에서 모티브를 따온 '바게트 빵을 삼킨 스페너' 벤치가 탄생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전아파트와 SK테크노 정류장에는 '툭고래양' 벤치와 '악어를 흉내내는 니퍼군' 벤치를 길의 사이에 두고 양 편에 설치했다. 상상력을 통해 공단 사람들에게 일 안에서의 활력을 주고 싶었다. 공단에서 쓰는 공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로 변신했다. 늘 대하지만 물건으로만 생각하는 공구와 빵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재미있는 이름을 붙인 푸른 고래등 의자, 수면 위에 떠오른 악어를 연상시키는 니퍼 모양 벤치. 평범했던 정류장이 예술가의 작은 센스와 만났다. 햇살이 비추자 이제 막 태어난 벤치들이 기지개를 켜는 듯하다. 귀여운 벤치 덕분에 한층 친근해진 공단 풍경,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작은 느낌표 하나를 안고 버스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01,02

2007년 8,9월 공단지역 버스 정류장 유형 조사를 벌였다.

03,04

지역내 기업과 예술가의 네트워크로 새로운 문화유형을 창출하기 위해 쌍용양회, 삼영전자의 협조문의와 자재 조사 단계를 진행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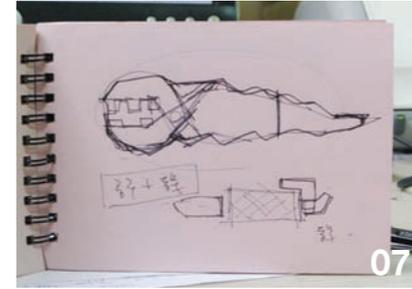
05,06

예술성과 편리성, 내구성을 감안하면서 작가 개인의 상상력이 담긴 벤치를 만들기 위한 회의와 실측이 이어졌다.



07,08

디자인 단계. 예산과 재료의 문제를 감안해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가능하면 심플하게 정리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공단이라는 특색을 이렇게 반영했구나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09,10

철골조와 타일을 이용해 벤치를 제작하는 과정. 단순한 모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었다.



11,12

새로운 벤치를 정류장에 설치하는 모습. 타일색이 산뜻해서 정류장 안에 설치된 기존 의자와 대비된다. 이용객들을 위한 기분전환의 요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끈후끈 상대원동

문화공동체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만남과 격려의 자리

성남지역 자활센터
2층 교육관





2008년 1월 19일, 성남지역 자활센터 2층 교육관에서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 한 마당이 열렸다. 참여 작가와 기업봉사단원, 복지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사랑방 문화클럽 회원들이 만나는 자리이자,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 상대원 1동 동장과 주민자치 위원장이 참석해 그간 진행된 콩닥콩닥 예술공단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였다.

방영기 경기도 의원은 콩닥콩닥 예술공단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화는 거대한 조형 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문화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민수지 양은 처음엔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열심히 그리면 사람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다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 완성되니 정말로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이 될 것 같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성남문화재단이 성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동아리들을 발굴해 연계한 사랑방 문화클럽은 사회 복지 시설에서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던 참이었다며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를 반가워 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남 지역 내 복지시설과 문화 동아리를 연결해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늘푸른 섹소폰 앙상블’과 ‘숫대’의 사자춤, 사물놀이 공연이 여름부터 겨울까지 공단을 두근대게 했던 이번 프로젝트를 더욱 후끈하게 축하해 주었다. 다과와 막걸리, 문화와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답소가 이어졌다. 성남의 각별한 문화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확인되었다.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성남 지역의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방영기 경기도의원

“반응이 좋았다. 예산이 적은 어려움에도 훌륭한 문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는 거대한 조형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문화임을 느꼈다.”



지관근 성남시의원

“나 역시 상대원동에 살고있는 주민이다. 참 뿌듯한 프로그램인데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결과만 보니 아쉽다. 공단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노동자의 삶과 관계, 그 가치를 표현해 좋았고 사회복지 시설도 함께 해서 좋았다.”

민수지 고1, 참가자

“처음엔 사람들도 볼테니까 부담스러웠고, 잘 그럴 자신도 없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 너무 뿌듯했다. 벽화는 쉽게 지워지는게 아니라서 내가 그렸다고 자랑도 하고 이담에 커서 생각했을때 추억거리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형주 우리공동체 부원장

“만들어 주신 평상을 추워서 아직은 못 쓰고 있지만 날 풀리면 아이들이 앉아서 잘 놀게 될 것이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조종규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

“프로젝트 기획, 진행에 있어 전문가만 참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동안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고생 많았다.”



서대성 생산과 존경의 벽 참여작가

“날씨가 추워 고생했던게 기억에 남는다. 그려놓고 나니 회색도시가 컬러풀해진 것 같다. 성남이 예술과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며 변화하는 것이 반갑다. 다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세심한 계획과 준비에 힘쓰길 부탁한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정기봉 코맥스 자재팀 과장

“마지막 단계를 돌아볼 때의 뿌듯함이 있었다. 벽화를 보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더 뿌듯하다. 작년이 시초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이런 프로젝트가 생겼으면 한다. 복지시설에서 문화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꼭 불러달라.”



곽명희 중1, 참가자

“자활센터 벽화그리기와 오늘 행사 꾸미기에도 참여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지난해 1월, 성남문화재단이 1,103개에 이르는 성남 지역의 동호회를 발굴하고 연계해 시작되었다. 사랑방 문화클럽에는 음악 연주 모임부터 풍물패, 수채화, 한지공예 등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획과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순수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는 상시적인 지역 봉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어떤 팀이 어떤 복지관을 도울 것이냐를 찾고 있던 차에, 문화로 복지 시설과 함께 한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분당 쉼트 모임 대표이면서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인 김미화씨는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한 콩닥콩닥 예술공단이 좋은 선례가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나아가 예술가와 사랑방 문화클럽 사이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교육을 받은 사랑방 문화클럽 회원들이 또, 예술가의 관람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성남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이런 뜻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통화를 도입했다. 문화통화는 성남 지역 내에서 문화 활동을 나눌 때 가상의 통화를 주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문화 체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문화통화가 활성화되면 김미화씨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 관람도 함께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공동체가 연계해 문화 활동을 벌임은 물론, 기업의 사회 공헌에 있어서도 문화적 시야를 넓힌 콩닥콩닥 예술공단을 통해 더욱 활발한 성남지역의 문화 교류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찬국 예술감독과의 대화

1. ‘콩닥콩닥 예술공단’.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땀내음이 전해지는 이름이다. 네이밍 스토리가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공단이 들어서 있는 중원구 상대원 1동 주민들과 공단에 소속된 기업, 지역에 있는 복지 시설, 지역거주 예술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꼭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생활 차원에서 서로 어울리기 쉽지 않았다. ‘콩닥콩닥’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요즘 기업은 세계화와 경쟁적 환경이 심화되어 원가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보다 더 임금이 싸고 생산한 물건을 팔기 좋은 나라로 이동한다. 성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빈 건물만 남긴 기업이 많아졌다.

현재의 주소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른바 사회공헌에도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흔하지 않다. 뭔가 더 끈끈한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적더라도 지역에 애정을 가질만한 조건이 많아질수록 서로 상생할 길을 찾을 것이다. 기업 활동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도 자아의 실현과 사회적 안정,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가장 큰 경쟁력은 그 개인들의 주체적, 자발적 성취동기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만한 지점이 많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인 개인이 특별한 인연이 없던 지역 사람들과 평소에 생각할 수 없던 전혀 새로운 자극적인(?) 방식으

로 ‘콩닥콩닥’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다.

사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가 ‘콩닥콩닥’하는 관계들이라니!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 아닌가.

2. 콩닥콩닥 예술공단은 어떤 프로젝트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남문화재단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문화부나 서울시가 하는 사업보다 지역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후속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사회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치고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고달프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며 계속 투자하면 진정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매

우 중요하고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겨우 시작단계다. 이번 공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예산이나 일정을 고려할 때 공단 지역의 많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고 느껴졌다.

공단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문화체험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사업 홍보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아이디어가 요구되었다.

지역 내 기업들의 활동을 파악하던 중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둔 기업들이 많이 있으나 금전지원, 컴퓨터와 같은 기자재 지원, 그리고 복지 시설에서 계호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왕의 기업 봉사활동에 좀 더 재미있고 새로운 활동을 더하면 참여에 새바람이 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 없이 모두 즐거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획 되었다.

공단 사람들 대부분이 문화 소외를 겪고 있고 단순한 일상의 반복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든 문화동아리들도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 없이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런 면에서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문화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다면 서로 좋은 일이니 무한히 증식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단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지역에 공단이 생기고 성장해 온 역사를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이야말로 문화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가 공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유쾌한 경험을 나눠 갖는 것은 지역의 성장에 큰 의미가 있다.

3. 공단이 변화하고 있다. 공단과 지역민들과의 단절, 세대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았다. 어떤 변화와 단절이 있다고 보는가?

기업들이 기술 집약, 지식기반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고 상당수의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요구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을 선호하고 있다. 갈수록 지역민들이 지역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지역과의 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지역의식이 약해져서 지역 활동에 소극적이 되고 일터가 갖는 다양한 가능성은 축소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시대적 상황에 의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기업이 그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진정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목표에 매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일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몰수하여 창의력을 고갈 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위험을 증가 시킨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생산활동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고 생업의 긍정성보다 무미건조하고 스트레스에 짓눌린 피곤한 일상을 이미지화 한다. 그 후유증으로 직업에 대한 편중현상을 불러 자기와 맞지 않은 직장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길을 택하는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여와 개인의 자아가 확장 된다면 기업과 지역사람들이 한동네 사람이라는 의식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연쇄적으로 좋은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 복지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대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돕고 사회를 돕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당하고 저평가되어 늘 올

타리 안에 갇히도록 규정당하기 때문에 기회를 잃는 수가 많다.

4. 감독님의 작업들. 창조적인 관계 맺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많다. 예술공단 프로젝트에서도 그러한가?

공단공단 예술공단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나 지역과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어쩌면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혼쾌하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 바라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화롭게 조정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또, 참여 작가들도 공공미술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많은 토론이 필요했으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해가 어렵더라도 설정을 따르다 보면 역동적 관계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역부족이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단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

여했던 사람들에게서 많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쪽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한 대로 가능성 투성이었다. 스스로의 문화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실험되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전달에 치우친 감이 있다.

제도와 시설 인프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활동이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 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힘든 봉사활동을 해냈다는 기쁨보다 자신이 새롭고 즐거운 체험을 했다는 것에 더 기뻐했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술로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좀 더 다양하게 연구되어 그들의 건강한 삶과 명량이 주눅 들지 않고 피어나야 한다.

5. 벽화, 벤치 등 이번 프로젝트 중 조형물 디자인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생산-존경의 벽’ 벽화는 공단 지역의 기업을 12개로 유형화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화로 형상화 하는 작업과 작가들이 만화 내용을 고려하여 다시 벽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정하였다.

지역 내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상습 정체구역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보게 하였다. 청소년들의 만화 작업은 함께 공단을 돌며 체험하며 즐기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시간문제로 공모하는 방법을 취했으나 작품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내용도 부족하여 작가들의 작업만으로 진행 하였다.

‘쉽오’의 공단 지역 버스정류장 벤치 설치하는 기존의 정류장 쉼터 바깥쪽에 설치하였다. 안쪽의 나무 의자는 노약자에게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발랄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위한 배려이다. 기능뿐인 공구에 생명을 입혀 ‘수다 떠는 니퍼들’처럼 공단의 정체성을 연상시키면서 유머 넘치고 정감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나는 공공미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유머라고 생각한다. 뜻하지 않게 조우하는 유머로 인해 많은 긍정적 관계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6. 예술공단이 제 역할(매개자로서의 공공미술)을 했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지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작단계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모르고 있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 이후에 일어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낯설고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에 집착하기도 한다.

공공미술은 스스로 완성형으로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관계를 통해 진화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단과 공단지역의 관계는 지금까지와 같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존재 가능하지만 문화재단과 예술가들, 그리고 기왕의 사랑방 문화클럽과 같은 그룹들의 각성된 활동에 의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공단에 활기(活氣) 씨앗이 번지다!

문화공동체는 무엇인가!

문화공동체는 공동체의 생태적 삶을 가능케 하는 활기(活氣)와 같다. 그것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성취한 지식이며, 신념이자 행위이다. 하여 이것은 어떠한 삶의 구성체 이론보다 강하고 아름답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한다.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주택 등),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문화인·문화재·문화국가 등),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우리가 문화공동체의 꿈을 꾸기 위해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과 장소지형에 대해 상상해야 한다. 도시문명이 발달할수록 삶의 공간은 문화에서 멀

어졌다. 타워팰리스에서 기초단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단에 이르기까지 다름 바 없다. 주거공간, 노동공간, 매개공간, 소통공간, 심지어 문화공간이라 표방하는 곳조차도 문화가 없다. 문화는 차라리 인문학이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대해 인문학적 상상과 실천을 더하는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콩닥콩닥 예술공단과 공공미술

성남문화재단이 지원한 2007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성남시에 있는 상대원1동 내 공단과 시설을 주 대상으로 했다. 은행동과 달리 이곳은 주거와 노동, 소통, 매개공간이 뒤섞여 있는 형국이어서 기획작업이 쉽지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장소 특정성이 매우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당초 ‘그림언덕’이 구상했던 것에 예술감독 박찬국을 참여토록 조언한 평가단의 제안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 특히 공공미술의 형식을 빌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공동체’의 의미를 실제화하고 이를 사업진행에서 실천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는 기존의 공공미술 방식과 거리가 있기도 했다.

환경조형물을 삶터에 덧대는 것이라 하더라도 참여와 체험의 공공적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

다.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생산과 존경의 벽;

기획취지는 이렇다. “노동, 생산활동에 대한 존경 : 투기성 자본의 흐름이 지나치게 평가되고 생산과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 되는 시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산 활동으로 삶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지역 기업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프로그램”.

남한산성 순환로변에 있는 산성아파트 방음벽 200미터 구간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었다. 12명의 작가가 그린 벽화는 성남공단 12개 업체의 유형을 주제화한 작품이다. 추운 겨울에 매끈한 벽이 아닌 요철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고달픈 것이지만, 기존 방음벽화와 차별화를 시키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친밀한 현장성과 뿌듯함을 갖게 하려는 의도는 참 좋았다. 특히 벽화의 내용을 통해 공단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이 작품이 하나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참신한 것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현대 벽화처럼 그것이 하나의 역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인다. 노동과 노동자, 노동의 역사, 공단의 역사, 그 현장성이 잘 살아 있는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구상과 예술가의 궁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생기발랄 연두리본 ;

기획취지는 이렇다. “문화적으로 확장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기업, 시민사회, 복지시설, 문화기관,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문화를 매개로 상생하는 경험을 제공”.

이는 공간 일대에 소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다섯 곳과 기업 봉사동아리 다섯 개가 연계되어 진행된 일종의 공간재생 프로그램이었다. 다섯 곳은 <시온의 집>, <우리 공동체>, <성남 지역 자활 센터>, <성남 장애인 재활작업장(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 <성남 여성회 도서관<물푸레 도서관>이다. 복지시설의 상황에 따라 공간재생,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형식을 달리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즐겁게 참여하고 체험하며 성장하는 ‘유쾌한 피부접촉 관계’였다.

<시온의 집>은 무연고, 무의탁 치매 노인 무료 복지 시설이다. 당초 기획은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주였으나 <풍경 벽화>와 <발도장 찍기>로 바뀌 진행했다. 창을 열면 곧바로 보이는 회색담이 이들에게 무척이나 쓸쓸한 무엇이었다. 여기에 꽃과 대나무 숲을 그려 넣어 예술담장을 만들었다. 코멕스 봉사단과 남궁희, 조인희, 정용주 작가가 참여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막막한 벽이던 것이 조용히 감삼해도 괜찮을 숲이 되어 숨통을 터주고 있어 벽화의 의미 못지 않게 활용성이 뛰어났다.

<우리 공동체>는 고아들을 비롯한 결손가정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다. 변동없이, 장애우들이 바깥 공간에서 이용할 마루와 의자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삼성테크윈 봉사단과 임창조 작가가 참여했다. 봉사단이 약속을 3회에서 2회로 약속을 바꿔 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결과는 잘 마무리되었다.

<성남지역 자활센터>는 1999년에 설립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공간이다. 간병도우미, 청소 등을 지원하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현재 6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당초 기획은 통행로 주변을 생태 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삼영전자 봉사단이 참여기로 했으나 삼영전자는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 크린토피아로 바뀌었고, 내용도 옥상 쉼터를 재생하고 입구 쪽 옹벽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벽화작업으로 바꾸었다. 잡풀이 우거진 쉼터공간은 기존에 있던 정자를 옆으로 벤치를 설치하고 주변 공간을 아득하게 꾸몄다. 또한 울타리와 정자, 벤치, 난간 등을 화사한 색상으로 탈바꿈시켜 접근성을 높였다. 한 겨울이 다 되어 완성되었지만, 봄이 오면 이 공간이 살림의 공간으로 살아날 것이다. 어둡고 칙칙했던 옹벽에는 푸른색, 연두색, 핑크색 등 미색의 바탕에 아이들이 즐겨하는 다양한 그림들을 침사했다. 벽화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것이 흠이다. 은행동의 생태 벽화처럼 무언가 주제를 뚜렷이 드러내는 작업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다.

<성남 장애인 재활작업장(한우리 주단기 보호센터)>는 1995년에 설립했고, 2개 동 건물에 장애우 관련 연합회와 장애우 작업장 등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장애우 150명 직업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은 성남시청 소유였다. 이곳의 작업은 대부분 단순 조립과 포장으로 양말, 텀버린, 마이크 커버, 공구 세트 등이 주요 제품이다. 에스콰이아와 동양공업사 봉사단과 이병철, 정삼선 작가가 벽화를 그리기 위해 참여했다. 기존에 있던 벽화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작업과 새 벽에 그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두 곳의 벽은 작지 않았다. 산뜻하게 완성된 벽화는 주변을 돋보이게 했다. 다만 이곳의 벽화도 장소 특정성을 살리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성남 여성회 도서관(물푸레 도서관)>은 성남여성회가 운영하는 부설공간이다. 당초 예상대로 간판과 책장만들기, 내부 페인트 칠이 사업 내용이었다. 사니 봉사단이 내부 사정으로 불참하자 동양공업사가 1회 참여했고, 성남 여성회 회원들이 적극 나섰다. 이주송(도색), 임창조 님이 더불어 수고했다. 어린이 80여명이 이용하는 이 도서관의 내부를 노랑과 연두빛의 활기 공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나무 책상도 더해졌다. 색은 인간의 심성을 자극해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 처음 이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칙칙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하기에 너무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색이 덧칠해지자 분위기는 싸악 바뀌었다. 오르내리는 계단도 환해졌고, 무엇보다 간판이미지가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다.

셋째와 넷째, 심, 오! & 후끈 후끈 상대원동;

이는 공간재생 개념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특히 <후끈 후끈 상대원동> 사업의 결과를 나누고 평가하며,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전시하고 또한 음식을 나누며 공연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대부분의 사업이 분명한 완결점없이 전시나 혹은 보고서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성과와 한계, 차후의 지속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자리일 터이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특별한 사업이다. 그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씨알심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우리가 잇고 지내는 문화공동체의 살림을 만들어보는 것이 특별하고,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활동이 특별하지 않아야 문화도 시다운 삶이 있을 터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분석하여 차후 지속적이며 보다 발전적인 문화공동체 사업이 번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김종길 | 미술평론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닥공닥 예술공단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그림언덕
후원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
협력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대원1동 사무소 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예술감독	박찬국
큐레이터	이화섭
매니저	박진영
코디네이터	김주희
도큐멘터	안정혜